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커시안과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 새 시즌 출정식



연변룡정축구구락부와 커시안그룹의 타이틀 스폰서(冠名) 계약 체결 및 새 시즌 출정식이 8일 오후, 룡정 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있었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와 커시안그룹은 정식으로 스폰서 협력 관계를 달성하면서 이날 15일에 개막하는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

행사에서 우선 커시안그룹의 홍보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은 커시안그룹의 기업 문화와 경영 리념에 대해 깊이있는 료해를 가졌다. 이어 커시안그룹 박길 리사장과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장문길 리사장이 무대에 올라 각각 계약 체결식과 팀 스폰서 후원식을 진행함으로써 쌍방의 협력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박길 리사장은 축사에서 연변사람으로서 고향의 체육사업과 중국의 축구사업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축

구는 전민의 건강을 촉진하는 중요한 운동으로서 커시안의 비전과 사명과 고도로 일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시안은 이번 협찬과 협력을 통해 축구팀이 새로운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든든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문길 리사장은 지난 시즌 팀의 잔류 성공 과정을 되돌아본 뒤 새 시



연변룡정팀, 2025 시즌 선수 대명단과 감독 및 코치진 공식 발표

—큰 인원 변동... 새 시즌 순위 변동 꾀할가

연변룡정팀이 지난 4일 공식계정을 통해 2025 시즌에 참가할 30명 선수 대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시즌의 대명단에 비해 인원 변동이 비교적 크다. 이보, 로난, 아블레다 등 외적 선수와 현지진, 왕성패, 손곤, 리아남, 양경범, 류박, 왕빈한, 장오개 등 국내 선수를 포함하여 지난 시즌을 뒀 16명의 선수가 팀을 떠난 가운데 이번 시즌을 맞아 외적 선수 도밍고스, 포부스, 음바와 국내 선수 박세호, 고운봉, 호지원 등 10명의 신인을 영입했다. 이와 동시에 3명의 예비팀 선수가 두드러진 활약으로 1군 팀으로 올라왔다.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공식계정



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커시안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팀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연변룡정축구팀은 새로운 시즌에 더욱 충만된 열정과 필승의 신념으로 도전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 대표 왕봉이 전체 선수들을 대표하여 새로운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 연변의 축구 정신을 전승하고 고양하며 감독의 전술 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구락부의 관리규정과 경기규율을 준수함과 더불어 경기

장에서 모든 힘을 다해 매 경기 승리를 위해 분투할 것임을 정중히 약속했다.

이날 또 연변룡정축구구락부의 새로운 시즌 축구팀 유니폼이 선보여졌다. 행사의 끝으로 부주장 윤조휘가 팀기를 왕봉에게 수여하면서 팀이 바야흐로 새로운 시즌에 나서게 되었음을 상징했다. 윤조휘는 축구팀 전체 선수들이 사명을 다하고 완강하게 싸워 연변축구의 풍격과 수준에 걸맞는 경기로 연변축구 발전

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바랐다.

한편 커시안그룹은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건강산업에 주력하여 연구개발, 생산, 판매, 판매후 서비스를 일체화한 그룹이다. 다년간 의료기계와 건강식품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로 첨단기술기업,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중소기업 등 많은 영예를 얻었다.

/ 김가혜기자
/ 사진 박경남특약기자

FIFA, 2026 월드컵 결승전서 중간휴식시간 리용한 쇼 벌인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다시금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8일(중국시간) “FIFA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슈퍼볼 스타일의 쇼를 진행하려면 경기 규칙을 바꿔야 한다. 기존 중간휴식시간에서 최대 15분 가까이 늘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간휴식시간 쇼는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의 상징적인 이벤트이다. 그 위상에 걸맞게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 지난달 10일 켄드릭 라마가 진행한 제 59회 슈퍼볼 중간휴식시간 쇼는 무려 1억 3,350만명이 생중계로 시청했다.

중간휴식시간이 30분인 미식축구와

는 달리 축구는 15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켄드릭 라마의 무대는 약 13분간 진행됐다. 무대 설치 및 철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FIFA가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미 6일(중국시간) 미국 델러스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FIFA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결승전 중간휴식시간 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 걸맞은 쇼를 선보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국의 인기 밴드 콜드플레이가 참여한다. FIFA는 콜드플레이와 함께 국제빈곤퇴치단체 ‘글로벌 시티즌’

과 협력해 중간휴식시간 쇼를 기획하기로 밝혔다. 콜드플레이는 아티스트 섭외 및 공연 기획을 맡는다. 콜드플레이의 공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판티노 회장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세상이 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의는 좋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FIFA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중간휴식시간 쇼가 펼쳐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메히코에서 공동 개최되며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다.

/ 외신종합

여전히 력사 쓰고 있는 ‘체조 전설’ 50세 추소비티나

—복귀하고 첫 금메달... 2028 LA 올림픽 노린다



2008년 8월 17일, 추소비티나가 북경올림픽 여자 도마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 신화사

우즈베키스탄의 체조 전설 옥사나 추소비티나(50세)가 체조 월드컵 바쿠역에서 여자 도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50세에 접어든 그가 복귀를 선포하고 거머쥔 첫 세계 우승이다. 올림픽 통산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보유한 추소비티나는 50살을 맞은 현재도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올림픽에서는 무려 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다. 1975년에 태어난 추소비티나는 8번의 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올해 2월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9번째 올림픽인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1982년부터 체조를 시작한 추소비티나는 “내 1순위 목표는 LA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 생활을 하는 기간 끊임없이 극한에 도전했다. 2002년에 백혈병을 앓는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이미

은퇴했던 그는 복귀를 선포했으며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 난 늙어갈 수 없다.”라는 약속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적 있다.

오랜 시간 현역 선수로 활동하는 리유로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다.”고 밝힌 추소비티나는 “나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여전히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2028 LA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체조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종목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2016 리오데자네이로올림픽에서 41세 2개월의 나이로 이미 올림픽 역대 최고령 체조 선수라는 기록을 세운 추소비티나는 부상으로 작년 빠리대회를 포기해야 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의 경력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 신화사

축구협회 선수 자가추천 시스템, 어떻게 참여?

3월 1일, ‘중국축구협회 자가추천 시스템’이 중국축구협회 공식 사이트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중국축구협회 자가추천 시스템’은 선수 자발적 등록, 자가추천 정보 작성, 업무부문 1차 심사평가, 업무부문 선발 및 정보 입력, 동태 추적, 2차 평가 등 5가지 과정을 통해 선수 자가추천 기능을 실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을 소지한 모든 선수는 자가추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가추천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축구협회 관련 업무부문은 전문가단체를 조직하여 자가추천 선수에 대해 집중적 1차 심사평가, 현장 선발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선발된 우수한 자가추천 선수는 다양한 훈련캠프와 훈련팀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며 중국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에 참가할 기회도 얻게 된다. 남녀 각 연령대의 1차 심사평가와 선발 정보 입력 작업이 완료된 후 정보입력 명단은 정기적으로 공지를 통해 중국축구협회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다. 중국축구협회 규율검사감독부는 자가추천 선발사업에 대해 전 과정 감독을 진행하고 중요한 시간대에 사회감독원을 초청하여 현장감독에 참여시킨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중국축구협회

선수 자가추천 시스템’은 중국축구협회가 축구인재 선발 기제를 혁신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축구인재 선발 통로를 원활히 하고 축구인재 선발 경로를 확장하며 한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고 주변의 축구인재 선발 부패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우리 나라 축구인재 발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축구협회 선수 자가추천 시스템’ 로그인 주소는 ‘zijian.thecfa.info’이며 로그인 경로는 중국축구협회 공식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과 청소년 분류에 발표된다.

/ 인민넷

간절함과 열정이 만나 승리의련꽃 피우자



7일 17시부터 국제축구연맹 2026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3차전 중국팀과 오스트레일리아팀 경기의 입장권 판매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식 시작됐는데 6만여장의 입장권이 15분 만에 모두 매진되었다.

이번 경기가 이토록 주목을 받는 원인은 비록 중국팀이 목전 C조에서 6위에 머물러있지만 2위 팀 오스트레일리아와 1점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가 열리는 항주올림픽체육중심경기장은 ‘큰련꽃’으로 불린다. 다 함께 상서로운 ‘큰련꽃’이 3월 25일 저녁에 역사를 창조하는 승리의련꽃을 피우길 기대해보자.

/ 신화사